

# 北 미사일... 文 보다 아베 먼저 찾은 트럼프

### 50분 통화 북핵 대응 논의 중국 '대북 제재' 협조 요구 아베, 방위력 증강 시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지난 31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50여 분간 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지금까지 미 일은 긴밀하게 연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줄곧 악화시켜왔다"며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동맹국을 지키고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일,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중국이 (해결에 나선다면) 쉽게 이 문제(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명신 저수량

저수량(褚遂良, 596~658)은 저장성 향저우 출신으로 자는 등선이다. 서법(書法)에 뛰어나 구양순, 우세남, 설직과 함께 초당사대기(初唐四大家)의 일인이다. 무척천의 황후 책봉에 반대해 좌천되어 근심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는 수나라 말기 통사시인을 지냈다. 당 건국 후에는 이세민 휘하에 들어가 개조참군을 지내는 등 신임을 받았다. 홍문관 18학사의 일원인 우세남과 구양순으로부터 문학과 서법을 배웠다. 젊은 존재로서 홍문관을 좌지우지했다. 정관 3년(629년) 기거량이 되어 황제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의 업무를 맡았다. 이후 위징, 왕규 등이 맡았던 간의대부가 되어 태종에게 간언을 계속했다. 황제는 대부분 그의 주

었다. 황제는 차남인 위왕 이태를 마음에 두었으나 장손무기 등이 덕이 없다며 온화한 진왕 이지를 밀었다. 장손무기, 방현령, 이세직, 저수량만 있는 자리에서 태종은 "나의 아들들이 행동이 옳지 못해 내 마음이 진실로 의지할 곳이 없다"며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려 했다. 저수량이 칼을 빼앗아 진왕에게 주었다. 그를 황태자로 세우니 뒷날의 고종이다.

그는 사직을 위해 끊임없이 간언했다. 하루는 태종이 그에게 "순임금이 철기를 만들었는데 이를 간언하는 자가 1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간언할만한 것인가"라고 하문했다. 그는 "사지는 나라의 위태로움과 멸망의 근본입니다. 철기에 그치지 않으면, 금옥으로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충신은 군주를 사랑하므로 반드시

### "지금 회의 할 때가"

#### 유엔 美 대사도 중국 압박

니키 헤일리(사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와 관련,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우리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보도를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긴급회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실질적인 대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는 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은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CBS방송은 주유엔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지난 28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31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이미 수많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고,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국제평화에 가하는 위협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중국은 결정적으로(finally) 이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중국 "미국 사드 요격 시험, 북한 도발 부추겨"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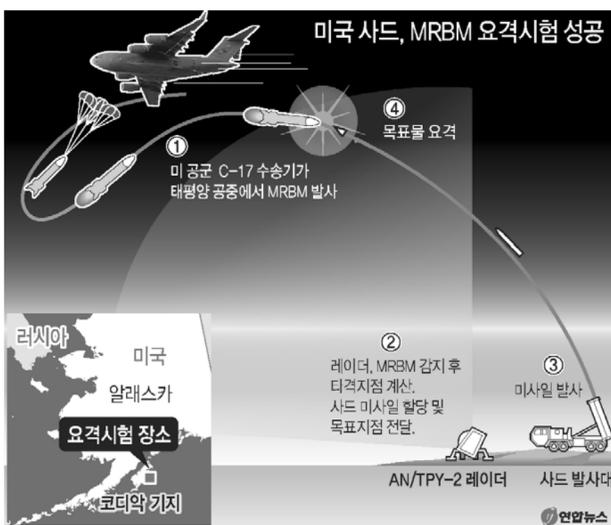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만인 지난 30일(현지시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하자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31일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변학자인 위자오(高超) 라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드가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추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가운데 이번 사드 요격 시험 성공은 동북아의 동맹에 대한 미국식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보다 발전된 기술로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사드 요격 시험이 지난 28일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대응 차원에서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포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아



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점도 주목했다.

위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은 별개의 주권 국가이고 누구도 다른 쪽의 문제를 풀 힘이 없는 만큼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고 유엔 대북 결의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금, 희귀 금속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항상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인민에 의식주를 제공할 인도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의 잘못된 트위터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별도 평론을 통해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트럼프가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초당사대가 명성... 무척천 등극 뒤 좌천

그 조짐을 막습니다.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는 더는 간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군신의 관계가 이토록 아담할 수 없었다.

649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이 위독해지자 장손무기와 저수량을 침실로 들어오게 했다. 그들에게 "태자가 인지하고 효성스러우니 그를 보좌해 인도하라"고 당부했다. 태자 이치에게는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있으니 너는 천하를 근심하지 마라"고 했다. 저수량에게 자신의 유조를 쓰도록 했다.

고종 즉위 후 하남군공에 봉해지고 재상인 상서우복야가 되었다. 고종은 부친의 후궁이었던 무척천을 총애했다. 황후를 폐하고 그녀를 황후로 삼고자 하였다.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저수량은 "폐하께서 황후를 바꾸시려면, 천하의 명문가에서 잘 골라 뽑아야지, 하필 무척천을 볼 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그는 "사관이 군주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갖추어 기록하는 것은 군주가 감히 그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스스로 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고 답했다. 사관으로서의 기개가 이토록 단호했다.

태종 말년 황태자 폐위 문제가 발생했다. 태자 승건이 기행을 되풀이해서 더 이상 황태자 자리에 나눌 수가 없

장을 가납했다.

그는 태종의 요동 정벌을 강력히 반대했다. 고구려는 장군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새로 옹립하는 정변을 일으켰고 反唐 노선을 고수했다. 644년 태종은 "연개소문이 군주를 시해하고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했다. 지금 또 다시 나의 명을 어기어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동 정벌 방침을 밝혔다. 그는 "폐하께서 지휘하시면 중국이 깨끗이 평안해지고, 사방 오랑캐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할 위엄과 명망이 큼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작은 오랑캐를 정벌하시다 만에 하나 자질이 있게 되면 위엄과 명망이 손상될 것입니다."라며 반대했다. 태종은 정벌에 나섰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사관으로서 올바른 역사를 써야 한다는 춘추필법의 정신을 굳세게 지켰다. 642년 태종은 그에게 "기록한 내용이 참인가?"고 물었다.

그는 "사관이 군주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갖추어 기록하는 것은 군주가 감히 그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스스로 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고 답했다. 사관으로서의 기개가 이토록 단호했다.

태종 말년 황태자 폐위 문제가 발생했다. 태자 승건이 기행을 되풀이해서 더 이상 황태자 자리에 나눌 수가 없

##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화강  
 임박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 분양문의 (062) 610-9232